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 (생활과 윤리)

성명

수험 번호

제 [] 선택

1. (가), (나) 윤리학의 핵심 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윤리학은 도덕적 행위를 위한 근본 원리를 확립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근본 원리는 보편적 도덕 원리로서 인간 행위의 지침으로 성립되어야 한다.
 (나) 윤리학은 기존의 도덕 규범에 내재한 구조를 분석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도덕 언어의 의미와 도덕적 추론 과정이 타당한지를 검증해야 한다.

- ① (가): 특정 문화권에서의 도덕적 현상을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 ② (가): 다양한 학문과 윤리학을 연계하여 도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③ (나): 윤리학이 학문적으로 성립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 ④ (나): 인간의 도덕적 행위를 위한 보편적 규범을 정립해야 한다.
- ⑤ (가)와 (나): 도덕적 논증의 타당성을 가치 중립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2.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화 산업은 소비자의 모든 욕구가 실현될 수 있는 것처럼 제시하지만 그 욕구들은 문화 산업에 의해 사전 결정된 것이다. 즉 소비자는 자신을 영원한 소비자로서, 문화 산업의 객체로서 느끼게 되는 것이 체계의 원리이다. 문화 산업은 자신이 행하는 기만이 욕구의 충족인 양 소비자를 설득하려 들 뿐만 아니라, 이를 넘어 문화 산업이 무엇을 제공하는 소비자는 그것에 만족해야 한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주입시킨다.

- ① 문화 산업은 대중들의 욕구를 통제하는 장치이다.
- ② 문화 산업은 대중들의 주체적 소비를 가능하게 만든다.
- ③ 문화 산업은 대중들이 다양한 예술을 향유하게끔 만든다.
- ④ 문화 산업은 대중들의 비판적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요인이다.
- ⑤ 문화 산업은 대중들이 예술의 미적 가치를 인식하게 하는 수단이다.

3.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어떠한 준칙이 일반적인 법칙이 되기를 바란다면 타인에게 이 준칙의 타당성을 규정적으로 명령하거나 강제하지 않아야 한다. 발화자는 명령과 강제 방법 대신, 자신의 준칙이 보편화 가능한지 논의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타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개인이 모순 없이 일반 원칙으로서 원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인 규범으로 승인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무게 중심을 이행해야 한다.

- ① 담론이 도구적 합리성을 위한 장치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 ② 담론 참여자가 담론으로부터 도출된 부작용을 수락할 필요는 없다.
- ③ 담론 참여자는 자신의 주장과 더불어 개인적인 욕구도 표현할 수 있다.
- ④ 담론 참여자는 자신의 준칙이 보편화 가능한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 ⑤ 담론 상황에서는 소수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의견도 존중되어야 한다.

4. 다음 사상가의 관점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만약 명예에 대한 경향성이 실제로 공익적이며 의무에 맞고 명예로운 것에 해당한다면 칭찬과 격려를 받을 만한 것이지만, 존중받을 만한 것은 못 된다. 왜냐하면 그 준칙에는 그러한 행위들을 경향성에서가 아니라 의무로부터 행하는 윤리적 내용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문제 상황>

학생 A는 평소 대학교 입시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학교 홈페이지에서 불우이웃에 대한 자원 봉사가 입시 가산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A는 이를 확인한 후, 자신의 대학교 입시를 위하여 자원 봉사에 지원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 ① 쾌락의 양뿐만 아니라 쾌락의 질도 고려하여 행동하세요.
- ② 공동체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행동하세요.
- ③ 공동체의 전통에 부합하도록 유덕한 성품에 따라 행동하세요.
- ④ 행복을 도덕적 목적으로 간주하지 말고 의무에 따라 행동하세요.
- ⑤ 신과 사회에 대한 진리를 파악하는 자연적 성향에 따라 행동하세요.

5.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오늘날 청년 취업률은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기업들은 공개 경쟁을 통해 모든 청년들에게 취업 기회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을: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소수 집단에 속했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차별을 받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수 집단에게는 취업 가산점을 부여해야 합니다.

갑: 아닙니다. 소수 집단의 청년들에게도 취업 기회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합당하지만, 이들에게 취업 가산점까지 부여하는 것은 기회의 평등에 위배되며, 역차별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을: 아닙니다. 소수 집단의 청년들에 대한 취업 가산점은 그들이 과거에 당한 차별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취업 가산점은 오히려 진정한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입니다.

- ① 청년 취업률 감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가?
- ② 소수 집단 청년들에게 취업 가산점을 부여해야 하는가?
- ③ 소수 집단 청년들에게 취업 기회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하는가?
- ④ 취업에서의 기회의 평등은 모든 청년들에게 보장되어야 하는가?
- ⑤ 취업 기회가 공개 경쟁을 통해 보장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가?

2 (생활과 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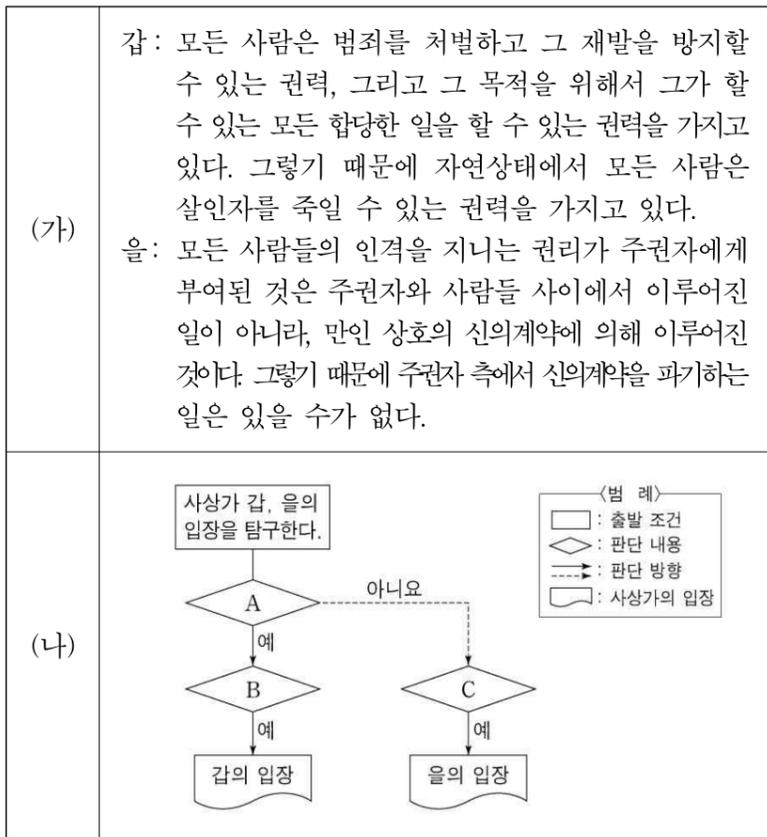
사회탐구 영역

6.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물오리는 비록 다리가 짧지만 그것을 길게 이어 주면 괴로워하고, 학의 다리는 길지만 그것을 짧게 잘라 주면 슬퍼한다. 이러한 까닭으로 본래부터 긴 것을 잘라서는 안 되며, 본래부터 짧은 것을 이어 주어도 안 된다.
 을: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기 때문에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저것이 사라진다. 비유하면 세 개의 갈대가 아무것도 없는 땅 위에 서려고 할 때 서로 의지해야 설 수 있는 것과 같다.

- ① 갑: 인의(仁義)는 인간의 본성에 따라 생성된 도덕 규범이다.
- ② 갑: 도(道)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사물의 귀천을 구분해야 한다.
- ③ 을: 연기의 산물인 자아를 고정불변한 실체로 인식해야 한다.
- ④ 을: 자아에 집착하는 것은 고통의 근원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 ⑤ 갑과 을: 자기를 극복하고 예를 회복하는 삶을 지향해야 한다.

7. (가)의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 기>

ㄱ. A: 사회 계약 시 양도되어서는 안 되는 자연권이 존재하는가?
 ㄴ. B: 자연 상태에서 자신의 소유물을 처분하는 것은 가능한가?
 ㄷ. B: 국가가 지니는 처벌권은 계약 당사자로부터 양도받은 것인가?
 ㄹ. C: 주권자 설립에 반대한 사람들도 주권자의 판단을 승인해야 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8.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과학 기술은 좀처럼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들의 존재를 철저히 지배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어디서나 과학 기술에 붙들려 있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는 기술을 중립적인 것으로 고찰하여 우리와 무관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기술에 내맡겨진다.

<보 기>

ㄱ. 기술은 사물의 은폐된 측면을 외부로 드러내는 방식이다.
 ㄴ. 기술의 본질을 인간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국한해서는 안 된다.
 ㄷ. 기술을 긍정하는 사람은 모두 기술에 의한 종속에서 벗어난다.
 ㄹ. 기술을 가치 중립적으로 고찰해야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9.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어떤 소수자가 시민 불복종에 가담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경우, 그와 적절하게 유사한 상황에 있는 다른 소수자도 마찬가지로 정당화된다. 그런데 시민 불복종을 하기 위한 똑같이 타당한 사정을 가진 많은 집단들이 있을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생각해볼 수는 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모두 이와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게 될 경우 정의로운 체제의 효율성을 침해하게 될 극심한 무질서가 따르게 된다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보 기>

ㄱ. 시민 불복종은 오직 합법적 시위의 형태로만 시행되어야 한다.
 ㄴ. 시민 불복종은 타인의 시민적 자유에 대한 간섭을 동반하는 행위이다.
 ㄷ. 시민 불복종에 무제한적으로 가담할 경우에는 사회 체제가 손상될 수 있다.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10.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순수하게 감성적인 동물은 감각적인 즐거움만을 느낄 수 있으며, 순수하게 이성적인 존재의 의욕은 선에 해당한다. 인간은 이성적 존재자가 느낄 수 있는 선을 추구할 수도 있고, 동물이 느낄 수 있는 인락함을 추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적 즐거움은 동물과 신적 존재 사이의 중간자인 인간에게 고유한 것이며, 감성적인 것으로부터 순수 이성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한다.

- ① 미적 판단은 자기 자신의 이익 실현을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 ② 미적 판단의 근거가 예술 그 자체의 형식에 있는 것은 아니다.
- ③ 미적 판단은 대상에 대한 객관적 개념에 국한하여 이루어진다.
- ④ 미적 판단과 도덕 판단은 모두 일체의 이해 관심으로부터 독립된다.
- ⑤ 미적 판단은 도덕 판단과 구분되므로 도덕성 증진에 기여할 수 없다.

11.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사회 계약 안에는 자기 자신과 자기 생명을 처분한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만약 형벌을 가하는 권한의 기초에 형벌받기를 의욕하는 범인의 약속이 놓여 있어야 한다면, 범죄자가 자기 자신의 재판관이 된다는 궤변이 되는 것이다.
 을: 사회 계약으로 결합된 사회 전체를 대표하는 입법자만이 형벌권을 지닌다. 사회의 일원에 지나지 않는 어떠한 재판관도 같은 사회의 다른 구성원에게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어떠한 형벌도 부과할 수 없다. 형벌은 오직 법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보 기>

ㄱ. 갑: 시민 사회가 해체되기 직전에는 살인범에 대한 사형이 면제된다.
 ㄴ. 을: 범죄 발생 후 곧바로 신속한 형벌이 시행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ㄷ. 을: 범죄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형벌의 확실성에 있다.
 ㄹ. 갑과 을: 범죄자는 사회 계약 시 사형에 동의하는 당사자가 아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ㄹ ⑤ ㄷ, ㄹ

12.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강조하는 공직자의 자세로 옳지 않은 것은?

못 배우고 무식한 사람이 한 고을을 얻으면 건방져지고 사치스럽게 되어 절약하지 않는다. 재물을 함부로 써서 빛이 날로 불어나면 반드시 욕심을 부리게 되고, 욕심을 부리면 아전들과 짜고 일을 꾸며 이익을 나눠 먹게 되고 이익을 나눠 먹다 보면 백성들의 고혈을 짜게 된다. 그러므로 절약은 백성을 사랑하는 데 있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일이다.

- ① 공직자는 백성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
 ② 공직자는 백성의 정당한 수익을 함부로 빼앗으면 안 된다.
 ③ 공직자는 백성이 주는 뇌물을 제멋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
 ④ 공직자는 자신의 이익보다 공적인 의로움을 우선해야 한다.
 ⑤ 공직자는 공익을 위해서라면 관청의 재물을 절약할 필요가 없다.

13.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성적 행위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 간의 혼인이 필요하다. 성적 행위는 출산을 암시하는 행위이자 추후 자녀 양육을 기대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당사자들 간의 동의 혹은 사랑은 성적 행위를 정당화할 유일한 근거가 될 수 없다.
 을: 성적 행위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결혼과 사랑이 성적 행위를 하기 위한 필수 조건일 필요는 없으며, 타인에게 해악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적 행위라면, 그 행위는 정당하다.

- ① 갑: 출산을 계획하지 않는 성적 행위도 정당화될 수 있다.
 ② 갑: 상호 교감을 가능하게 하는 성적 행위는 모두 정당하다.
 ③ 을: 당사자들 간의 상호 동의가 성적 행위의 유일한 조건은 아니다.
 ④ 을: 쾌락 그 자체를 위한 성적 행위는 도덕적으로 부당하다.
 ⑤ 갑과 을: 성적 행위에는 당사자들 간의 사랑이 전제되어야 한다.

14.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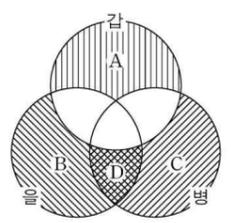
갑: 정의의 원칙들은 무지의 베일 속에서 선택된다. 그 결과 원칙들을 선택함에 있어서 아무도 타고난 우연의 결과나 사회적 여건의 우연성으로 인해 유리하거나 불리해지지 않는다는 점이 보장된다.
 을: 정의로운 상황으로부터 정의로운 단계를 거쳐 발생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 자체도 정의롭다.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리에 의해 규정된 변화의 수단은 정의를 보전한다. 소유물에서의 정의는 역사적인 것이다.

<보 기>

ㄱ. 갑: 개개인의 천부적 운에 의해 분배가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
 ㄴ. 갑: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불평등은 가상 상황에서 합의될 수 없다.
 ㄷ. 을: 취득과 이전의 원칙만이 개인의 소유 권리를 부여하는 근거이다.
 ㄹ. 갑과 을: 국가는 사회 구성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5.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경험상 한갓 인간 외에는 의무를 질 능력이 있는 또 다른 존재자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통상 한갓 인간에 대한 의무 외에는 어떤 존재자에 대한 의무도 가질 수 없다. 을: 무생물 자체는 도덕적 고려 대상이 아니다. 그들은 그들 고유의 선이 없기 때문에 올바르게 혹은 그릇되게, 호의적으로 또는 악의적으로 대우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하천에 대한 의무는 없다. 병: 개인은 상호 의존적인 부분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다. 대지 윤리는 단순히 이 공동체의 범위를 토양, 물, 식물과 동물, 곤 포괄하여 토지를 포함하도록 확장하는 것이다.</p>
(나)	 <p style="text-align: right;"><법 레> A: 갑만의 입장 B: 을만의 입장 C: 병만의 입장 D: 을과 병만의 공통 입장</p>

<보 기>

ㄱ. A: 인간의 동물 학대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ㄴ. B: 모든 생명체는 인간의 평가와 독립적인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ㄷ. C: 자연을 경제적 관점으로 평가하는 것은 모두 금지되어야 한다.
 ㄹ. D: 개체의 쾌고 감수 능력이 도덕적 고려 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 (생활과 윤리)

사회탐구 영역

16.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평화 상태는 민족들 상호 간의 계약 없이는 구축될 수 없고 보장될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 연맹이라고 부를 수 있는 특수한 종류의 연맹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평화 연맹은 국가의 어떠한 권력 취득에도 관심이 없다.
 을: 평화를 창조하는 일은 폭력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치료해야 할 폭력은 폭력의 결과를 의도한 행위자가 있는 직접적 폭력이고, 예방해야 할 폭력은 그러한 행위자가 없는 구조적 폭력이다.

- ① 갑: 국가 간의 일시적인 휴전 조약은 모두 평화 조약에 포함된다.
- ② 갑: 평화 연맹이 모든 전쟁의 종식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 ③ 을: 폭력을 예방하는 것은 폭력을 감소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 ④ 을: 직접적 폭력을 제거하는 것은 진정한 평화 실현의 충분조건이다.
- ⑤ 갑과 을: 평화 달성의 과정에서는 오직 평화적 수단만이 시행되어야 한다.

17.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색(色)·수(受)·상(想)·행(行)·식(識)의 새로운 구성이 태어남이고, 그 해체가 죽음이다. 인간이 태어나고 죽는 것은 생명의 과정에서 반복되는 것이므로, 생사에 집착하는 자는 진리를 제대로 깨달은 자가 아니다.
 을: 본래 아무것도 없었는데 순식간에 변화하여 기(氣)가 생기고, 기가 변화하여 형체가 생기고, 형체가 변화하여 생명이 생기고, 생명이 변화하여 죽음이 된다. 이는 봄·여름·가을·겨울의 운행과 같다.

- ① 갑: 삶과 죽음을 반복하지 않도록 진정한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
- ② 갑: 다음 생의 복(福)에 집착하면 윤회의 과정이 단절될 수 없다.
- ③ 을: 죽음을 애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도(道)의 본성에 위배된다.
- ④ 을: 시비를 분별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기의 순환이 중단될 수 있다.
- ⑤ 갑과 을: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18.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새로운 윤리는 인간적 삶의 전 지구적 조건과 종(種)의 먼 미래와 실존을 고려해야만 한다. 그것은 인간의 선(善)은 물론 인간 이외의 존재 및 자연의 선을 탐구해야 하며, 동료 인간에 대한 책임은 물론 자연에 대한 책임을 심사숙고해야 하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의 삶의 조건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 ①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존재는 책임의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 ② 행위를 금지하는 공포가 책임의 본질적인 속성으로 성립된다.
- ③ 책임의 범위는 인간이 스스로 의도한 결과에만 국한되어야 한다.
- ④ 인간이 자연에 대해 갖는 책임은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책임이다.
- ⑤ 현대 기술이 산출한 행위를 전통 윤리학의 관점으로 파악해야 한다.

19.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원조의 의무는 고통받는 사회가 합당하고 합리적으로 자신들의 일을 관리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질서 정연한 만민들의 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돕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는 더 이상의 추가적인 원조가 요구되지 않는다.
 을: 원조를 헛되게 만들 정책을 집행하는 나라를 원조할 책무는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부의 정책에 대해 아무런 발언권도 가지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결국 우리의 자원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 곳에 우리의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을 도울 것이다.

—<보 기>—

ㄱ. 갑: 인권을 강조하는 것은 절대 빈곤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ㄴ. 갑: 국가 간 자원 분포의 우연성을 고려하여 원조를 시행해야 한다.
 ㄷ. 을: 원조 행위자와 수혜자의 이익은 모두 평등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ㄹ. 갑과 을: 사회 구조 개선보다 절대 빈곤 해결을 우선해야 한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20.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간은 체험을 통해 자신이 위치한 공간을 삶의 중심으로 형성할 수 있다. 체험된 공간은 가치를 지향하는 삶의 관계들을 통해서 사람과 관계된다. 체험된 모든 공간은 그것을 체험한 인간과 서로 분리될 수 없다. 인간과 집의 관계는 집을 짓고 그 안에 살면서 자기 집 같고, 마음 편하며, 믿을 만한 친숙함이 있다고 이해될 수 있다. 인간은 이성적 노력을 통해 자신의 집을 지어야 하며, 그 집에서 자기 삶의 질서를 만들어야 하고, 혼란을 일으키는 외부 세계와의 끊임없는 투쟁 속에서 이러한 질서를 지켜내야 할 책임을 갖는다.

- ① 외부 세계로부터 자신의 삶의 질서를 지켜야 한다.
- ② 거주 공간은 외부 세계와 독립되는 안정적인 공간이다.
- ③ 체험을 통해 거주 공간과 내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 ④ 진정한 거주를 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이성적 노력이 필요하다.
- ⑤ 거주 공간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진정한 거주를 실현할 수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